

社 說

고조흥 당선자에게 바란다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개혁보다 안정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은 절대권력을 절대 한 권력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은 구시대적 병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국가적 전관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임기 3년, 국회의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뀔 이 기대이하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형국책 사업들은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경제는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중남지역에서도 여당후보의 폐해는 그 의미가 사뭇 크다.

포천시의 연천군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국민의견이 그다지 다르지 않는다.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개혁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지역정서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거양상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방송매체의 발달과 학력신장 등으로 인해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보다는 중앙정치 무대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우리 지역 고조흥 당선자는 지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포천시와 연천군 주민들이 바라는 점은 다음 같다.

첫째는 지역주민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포천시 지역민 하더라도 포천동과 소흘읍, 관인면, 이동면 등 각 소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양상이 있다. 이러한 소지역주의는 결국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켜 포천시 미래를 어둡게 한다. 고조흥 당선자는 전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상

대후보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과까지 포용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는 국가경제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제가 활성화시켜 달라는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호소이라는 점이다.

고조흥 당선자는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는 자꾸 어려워지고만 있다.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도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들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대규모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고, 그 일을 고조흥 당선자와 시장,군수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

셋째는 지역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법이나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 되어있다.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포천시와 연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각종 규제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는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것 기대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발표될 때마다 실망과 좌절하고 있다. 현실의 실망과 좌절이 꿈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고조흥 당선자가 먼저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

“신바람 나는 경기教育 토대구축”

제5대 경기교육감 결선투표 김진춘 당선



20일 실시된 제5대 경기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김진춘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김 후보가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지난 20일에 실시된 제5대 경기교육감 결선투표에서 기호 3번 김진춘(65· 경기도교육위원)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 1만6997표 가운데 과반수인 9천189표(54.0%)를 얻어 7천834표(46.0%)를 획득한 구충희(61·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후보를 1천35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결선투표에는 선거인단인 경기지역 1842개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 2만2천26명 가운데 1만6997명이 투표에 참여, 지난 18일 1차 선거(88.6%) 때보다 11.4%가 떨어진 77.2%의 투표율을 보였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공약으로 ▲교육균형개발법 제정 ▲학생 및 학부모 학교선택권 보장 ▲교원인사 제도 혁신 ▲사립운영 자율권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을 내세우고 경기도교육위원으로서 높은 지명도를 앞세워 선거인단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당선자는 오는 5월 6일 제5대 경기교육감 취임식을 갖고 오는 2009년 5월 5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 당선자는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인천사범학교와 인하대 교육대학원(교육행정학 석사)을 나와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초등교육과장, 평택교육장 등을 지냈으며, 경기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김진춘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신바람 나는 경기교육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어려운 교육환경 여건을 감안해 건축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계가 신뢰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당선자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경기도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5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 당선자는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인천사범학교와 인하대 교육대학원(교육행정학 석사)을 나와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초등교육과장, 평택교육장 등을 지냈으며, 경기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김진춘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신바람 나는 경기교육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어려운 교육환경 여건을 감안해 건축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계가 신뢰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당선자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경기도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올 250억원 지원사업

6월초부터 본격 지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는 지난달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4층에서 사무실 개소식과 라셉션을 가졌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는 지난달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4층에서 사무실 개소식과 라셉션을 가졌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는 지난달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4층에서 사무실 개소식과 라셉션을 가졌다.

“정직한 힘으로 경영하겠습니다”

조남실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 제21대 조합장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정)는 제21대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총689표 중 266표를 얻은 조남실(62)씨가 당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제1투표구(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 등 기타지역)인 포천시 어룡동 개성인삼농협 회의실과 제2투표구(연천군, 양주시, 풍무천시)인 연천지소에서 오전6시부터 오후5시까지 실시된 선거는 조합원 1035명(제1투표구 527명/제2투표구 508명)중 689명(제1투표구 315명/제2투표구 374명)이 참여해 66.6%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날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 진행된 선거 개표는 예정보다 1시간 이른 오후 6시30분 즈음 완료됐으며, 각 후보는 ▶기호1번 이종석 214표 ▶기호2번 조남실 266표 ▶기호3번 유경중 185표 ▶기호4번 이현기 20표 ▶무효 4표의 득표현황을 나타냈다.

한편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 따르면 당선증 교부장에서 조남실 당선자는 “조합의 부실 운영이 수년동안 계속된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을 조합원과 함께 정직한 힘으로 극복하겠다”며 “취임 후 ▶투명경영·반부패운동 적극 실천 ▶합리적 경영전략을 통해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6일 제21대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에 당선된 조남실씨가 당선증을 수여되며 기뻐하고 있다.

이와 “지난 과거를 말끔히 정리하고 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합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남실 신임 조합장은 지난 27일 연천지소 회의실의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5년도 국제교류사업 기본계획

포천시 해외교류사업 체계적, 다면적 추진

중국과 일본, 미국의 4개 도시 및 1개 대학과 국제 자매 또는 우호관계를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포천시는 ‘국제교류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차원 높은 협력사업들을 전개한다.

포천시는 국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을 국제화·지방화 시대의 당면 과제인 만큼, 해외교류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포천시의 2005년도 국제교류사업은 크게 ▶공무원 교환근무 ▶아름아리 연수 ▶다카네공원 건립추진 ▶한·중·일 청소년문화체험 행사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공무원 교환근무와 관련해 포천시는 ‘일본 아미야시현 호후도시’ 및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는 우선 이들 도시와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합의를 교환한 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여하 및 업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파견공무원 1명씩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환근무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이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와 여행차 보충료를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에서 파견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숙소와 생활비, 여학연수 및 현지시찰비용 등을 양 자매단체가 상호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이 프로그램으로 ▶행정연수 및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외국어 능력 향상 ▶통상·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름아리 연수단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을 해외 자매·우호도시에 상호 파견해 연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1회씩 방문을 지양하고 팀워크를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포천시는 출국 전 연수단으로 하여금 특수시책 추진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귀국 후에는 평가보고회에 참석하고 시책변경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포천시는 올 가을 개최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제1회 포천아시아비즈니스’ 등의 사전준비를 위해 5월 중에 아름아리 연수단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다. 또 8월 경에는 국제 자매·우호도시의 농업 연수단을 초청해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카네 공원은 포천시 소흘읍 내 약 3천여 평 이내의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제자매도시인 포천시의 일본 후쿠오카시(前 다카네정)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포천시·호후도시 간 공원건립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시와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공사 및 공원건립 비용은 호후도시 측에서 부담하고 포천시는 공원 부지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청소년 문화체험은 오는 8월 포천에서 일본과 중국의 중학생 각 20명, 포천지역 중학생 4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5박 6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국제 우호증진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등의 전통문화 체험과 민속문화 공연, 자국문화 홍보이벤트, 우호증진 캠프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며 청소년들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홈페이지도 실시된다.

한편 경기도 포천시는 일본 ‘호후도시’와 자매결연을, 중국 ‘조병산시’, ‘화이베이시’, 일본 ‘후쿠오카시’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포트대학’과는 친선교류의향서를 체결했고, 중국 ‘태무시’와도 상호 교류를 발전시키 나가기로 하고 관계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포천시는 올 한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경제, 문화, 예술, 농업,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보다 차원 높은 국제 투자 및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2005년 민방위 실기강사 위촉

도움 줄 수 있는 민방위 교육 앞장

포천시는 지난 26일 송남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수와 유병석 안전강사전국협의회 부회장을 유계남 적십자 응급처치강사를 2005년 민방위 실기강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1년 동안 민방위대원들에게 각각 교통안전과 심폐소생술, 화생방테러 대처방법 등을 강의한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고 “실생활과 유사시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방위교육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는 지난 26일 송남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수와 유병석 안전강사전국협의회 부회장, 유계남 적십자 응급처치강사를 2005년 민방위 실기강사로 위촉했다.

“벼농사 및 국화기르기 체험 가족을 모십니다”

쌀사랑 교실 참여 가족모집

도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영농을 체험하고 농산물을 수확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자리하는 끝나무들에게 농업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휴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5월 29일 모내기를 시작으로 “쌀사랑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쌀사랑 교실”은 모내기에서부터 벼 수확이 끝날 때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손모내기

잡초제거 벼베기 국화기르기 어린이들이 집에서 가를 수 있는 잔디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4~6학년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누구나 “쌀사랑 교실”에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27일부터 모두 무료 강정을 신청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참가자들은 들밭도 맛볼 수 있다.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학습용 벼 재배 재료비는 참가가족이 부담하게 된다. 벼농사와 원예를 연계한 이 같은 현장 학습은 우리 농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접수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031) 530-8568)로 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공명선거 다짐 건강 걷기대회

환경보존과 선거의 중요성 되새기는 시간 마련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함께 제35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4월 30일 실시된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재선거의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건강걷기대회를 지난 23일 오전 7시부터 포천시 군내면 청성문화체육공원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포천시민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천시장은 기관·단체장 및 시민단체 대표자 20여명과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3명이 참여한 ‘깨끗한 환경·깨끗한 선거’라는 주제로 대대적인 선거일까지 법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경쟁할 것임을 시민들 앞에서 다짐했다.

한편 선거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본행사인 걷기대회 외에도

사물놀이와 보물찾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곁들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환경보존과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 함께 투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는 한편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선거일에 투표한 유권자 가운데 모범유권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행사와 기업체 등의 후원을 통해 투표율의 증가폭만큼 후원금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거일에 꼭 투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지난 23일 제35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4월 30일 실시된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재선거의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포천시 홈페이지 이용 적극 홍보

포천시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포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구를 희망하는 주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시청 민원과의 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하며, 또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한다.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게 되며 정액으로 지급된다.

민약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키로 결정했으나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통신 포천시 동문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 호 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인 구 봉 주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국장 김 영 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김 규 석
F A 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